

해남군 친환경 농업 인증 4500ha로 늘린다

지난해보다 10% 증가... '친환경 1번지' 명성 지키기
유기질 비료·친환경직불금·새끼우렁이 공급도 확대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이 올해 인증목표를 대폭 늘리는 등 '친환경 농업 1번지'의 명성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인증목표를 지난해보다 10%정도 늘어난 4500ha로 정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총 107억4900만원을 투입

해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에 나선다.
해남군은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유기질 비료 2만 6732톤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도록 하고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수단그라스 재배(500ha)와 농업 부산물인 볏짚 환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또 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 등

인증비용 90%를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단지 장려금을 인증 단계·품목별로 ha당 70~150만원씩 차등 지원해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도움 하는 등 소비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이와 함께 관내 4878ha의 벼재배 논에 새끼우렁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생산비 절감과 농업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직불제를 1ha당 60만~12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보 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유기농 확산 교육과 친환경단지별 순회교육을 읍면별, 권역별로 실시하는 한편 영농작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농기록장 3200부를 제작해 관내 친환경인증 전체 농가에 배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농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보건소 출산용품 배달 서비스 호응

진도군이 출산용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 출생의 기쁨과 함께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축하선물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출산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쾌유를 위한 산후 영양제, 임신·출산·육아 사업 안내문 등 다양한 출산용품들을 대상자 집에 전달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행복한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행복한 진도군 만들기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초 보건소에 출산장려담당을 신설하고 ▲임산제·철분제 지원 ▲소득기준에 따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80%까지 보전
진도군이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해 그물망을 제외한 울타리,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군은 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은 농가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 산정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고구마, 벼, 배추 등 35건 피해에 1500만원을 보상했으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진도군은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하고, 회원 21명이 피해 신고와 포획 요청시 즉각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83마리, 고라니 47마리, 조류 90마리 포획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올 농지은행사업 150억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고 해남 완도지역 농업인에게 활발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8일 밝혔다.
해남완도지사는 지역농업인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목표대비 70%이상을 달성하고, 재정조기집행과 연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해 사업간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사업별 배정액은 ▲농지와 과원 규모화 64억원 ▲농지매입비축사업 19억원 ▲경영회생지원사업 44억원 ▲농지연금사업 4억 ▲경영이양지불사업 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신청 및 문의 사항은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꿈꾸는 진도' 군정 아이디어 보내주세요

내달 12일까지 접수
진도군이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4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받는다.
주제는 '공감 발상-꿈꾸는 진도'로, 지역의 현안이자 군민협력에 필요한 5가지 과제를 지정해 실시한다.



해남농기센터 봄꽃들 봄 채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도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육묘장에는 출하를 앞둔 꽃들이 화사한 봄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각 읍면별로 분양될 꽃들은 봄맞이 거리 단장에 쓰일 예정이며, 이번달 말까지 비올라, 리빙스틴데이지, 가자니아 등 4만7000여본이 공급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경영난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대출이자 200만원까지 지원
무담보 신용대출 특례보증도
해남군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와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출금 이자지원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금리의 3%, 연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를 납입하고 군 지역개발과나 읍·면사무소, 전담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또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무담보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은 해남군이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으로 재원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까지 보증하며 수수료는 연 1%.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정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대지 22평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902,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

대지 51평
건물 60평
최저가 210,000,000
감정가 300,000,000

남구 주월동 근린시설

대지 50평
건물 28평
최저가 99,000,000
감정가 14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3,151,000,000
감정가 4,501,000,000

나주 보산동 근린시설

대지 437평
건물 91평
최저가 212,000,000
감정가 302,000,000

운영동 기전빌라

222명 6가구 (수석정 어주동읍)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 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